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해가 바뀌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소망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얼굴이 달아오르곤 했던 경험은 필자뿐 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소망이란, 소원이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남다른 실천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지 선언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반복되는 새해소망처럼 구호만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선언한다고 모두 부자가 된다면 누가 노력하고 땀을 흘릴 것인가. 문화중심 도시 또는 문화수도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일까. 답은 자명하다. 당연히 '아니다' 라는 것이다.

예향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이미 매우 우수하다.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남도예술회관 등등

이다. 미술관만 해도 분관과 교육홍보관, 급남로 분관, 비엔날레관을 합하면 연면적 3,800평에 이르러 국립현대미술관보다도 400여 평이 더 많다. 그런데 작품소재 산이나 전시예산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물 등의 기반 시설만 갖추었다고 문화도시가 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광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으로 문화가 중심 되는 도시

실만 갖춘다고 문화도시가 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광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개 지금껏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운영보다는 우선 지어놓고 보면 관객은 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수요가 있어야 진정한 문화의 전당이 되는 것이고, 수요가 없다면 시설유지비만 낭비하는 애플단지가 될 뿐이다. 사실 문화예술시설이나 기관은 그 기본 건축비의 10% 정도가 매년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

전당의 경우 국립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외의 문화예술시설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복합단지 조성하고 문화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이후 유지비, 운영비에 대한 대안은 없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질 좋은 생산품도 중요하지만 소비층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광주시의 계획을 보아도 소비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소비자를 유인할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외국과 타 지역의 소비자를 광주

에 유치할 대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 열면 사람은 온다'라는 방식이다.

미술관 하나로 도시를 살려냈다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발마오의 경우 사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소비자 즉 관객을 염두에 두고 응의주도하게 설계되었다. 이들에게는 미술관도 중요했지만 미술관 가는 네르비온 강가의 길을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레 미술관에 도착하게 되는 동선을 갖추었다. 또 미술관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재잘거린다. 유치원 시절의 미술관 단체관람으로 미술관 하면 다리가 아팠던

기억뿐인 우리 아이들이 아닌 자연스럽게 미술관 옆에서 놀던 추억으로 미술관이 놀이터처럼 친숙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술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의 이면에는 문화수도 발마오의 완성을 위해 '발마오 리아 2000'과 발마오 메트로폴리 30'이 주도면밀하게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성공사례의 외형만 보고 그 이면은 애써 외면하려는 것일까. 성공의 이면에는 철저한 분석과 기획 그리고 시장성을 쟁겨보고 이슬비에 옷 젖듯 관객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중장기 플랜이 있기 때문이다. 만들면 그만이고 세우면 그만인 그래서 늘 새로 짓기만 하는 문화예술 진흥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산 차도 기름값이 없어 세워두다가 대형 신차가 나오자마자 또 사서 세워두는 일을 반복 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예향이라고 자부하면서 동네에 변변한 상업화랑하나가 없는 도시에 문화산업기지를 세운다고 산업이 융성 할 수 있을까. 새 차에도 욕심은 나지만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세워둔 차를 닦고 쪼이고 기름 쳐서 다시 타는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선언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술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5년만의 철도연결, DJ 열차방북 이루길

남북이 오는 2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시험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경의선 철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이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물류비 절감과 수송기간이 단축돼 남북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돼 오랜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이 희석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남북철도연결은 오랫동안 반도에 갇힌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맥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함으로써도 개방의지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허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핵 문제와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고립돼 있는 북한이 철도 연결이라는

기회마저 놓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차 방북을 강력히 희망했던 것도 철도 연결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해서다. 경의선 철도연결은 6·15 공동선언 직후인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6·15 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이 성사될 경우 남북교류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남북 철도연결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내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 4차 장성급 회담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열차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합의 보장서'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어려움을 남북이 현명하게 극복해 남북철도물류시대가 열리게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DJ의 열차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

“5·18 군투입은 질서용”말실수라 할수있다

5·18 26주를 코앞에 두고 여당 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고약한 말이 나왔다. 평택사태를 현직조사하고 온 열린우리당 의원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택 군투입과 5·18당시의 군투입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평택은 군사시설 보호목적으로 투입했고, 광주사태는 질서유지 목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한 것이다. 진행자가 미심쩍었던지 인터뷰 말미에 이를 다시 물었으나 의원은 똑같이 대답해버렸다.

당장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민주당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민변 부회장 출신에 의문사건 상규위원을 지낸 이원영의원이 진정으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광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을 말실수였다고 보아 넘기지 못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속에 너무나 뚜렷한 피의 역사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여당 인권위원장의 관념속에 자리잡고있는 의식이 이 정도였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런 말마따나 전두환 신군부 입장에서 보면 광주의 군대투입은 무말괄 것 없이 질서유지 목적이다. 그러나 그 질서유지는 학살을 통한 것이었다. 광주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정당의 당직자라면 실수라라도 '광주의 군투입'과 '질서유지'라는 개념은 함께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이같은 발언을 깊이 규탄하며 다른 정치세력들에게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증폭하지 말것을 당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변동원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같은 추세에 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 단독세대 증가 및 주거문제 심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이다. 실버타운이

기고 유준조 화를 걸어 “선생님께 매를 맞고 담배를 끊었던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담배 값을 계산하면 얼마이며 건강과 깨끗함 역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는 인사를 받을 땐 보람을 느껴서 살맛이 난다. 만산고목일지정(滿山枯木一枝青)이라 했듯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제 자식들 같이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며 애지중지하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다. 우리들도 스승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본다. 그렇듯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박봉을 쪼개 후

실버타운 조성 많은 관심 갖자 란 일반적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서 건설·운영 중인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이 실버타운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도 국내 실버타운은 대다수 노인들의 주거문화 해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료양로, 유료노인시설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천만원에 달하며, 임대형의 경우도 보증금이 3억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 대부분이 일부 상류층을 위한 고급 유료 양로원 및 요양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 등 유럽은 국가가 운영하는

스승님 우리 스승님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교육 없이는 학교교육도 바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학교에서 바른 도덕관을 강조해도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본이 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은 상투성 공염불이 되고 만다.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그런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조부모 별 댁신 분들이 서 있어도 태연하게 앉아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 저런 아이들은 누가 기르고 누가 가르쳤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또한 의외로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된다. 잃어버린 지 오래인 30년 전 제자가 전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해서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면서 혐악한 욕설을 퍼붓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나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미덕도 갖추어야 한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교통법규 준수 위해 범칙금 강화 방안 도입을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칙금 납부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체납자가 징수에 응하지 않아 차량 압류조치를 당하더라도 차량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다 압류해제에 드는 비용도 소액에 그칠뿐 별도의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차량 압류를 당해도 명의이전이 사실상 가능하며 폐차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몰아 하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일부 상층 체납자의 경우 차량을 거리에 무단방치하고 허위도난신고를 하는 부작

無等鼓 여전한 노예제도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관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전화 2200-619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AX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FAX 2200-617 체육팀 2200-663) (FAX 2200-618) (FAX 2200-690) (FAX 222-4267) (FAX 2200-570) 총무부 2200-511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00-521)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